

시월 **YWCA** 2022 5/6 vol.618

평등을 넘어
평화로

각자도생을 넘어
공동체적 삶으로

개인의 영성을 넘어
사회적 영성으로

2005. 5. 3



가락초등학교(2005. 5. 3)

YWCA 아침식탁 “애들아! 밥 먹자”

YWCA 아침식탁 “애들아! 밥 먹자”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아침식탁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나누고 가족 공동체의 의미를 회복하려는 취지로 전국 규모로 진행된 캠페인이다. 2005년 4월 울산Y를 시작으로 전국 15개 지역, 23개 초·중·고교 앞에 아침식탁이 차려진다. 서울Y는 5월 3일 가락초등학교, 10일 옥정중학교를 찾아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가족 사랑을 담은 인사말과 함께 따뜻한 주먹밥을 나누어 준다. 청소년들의 성장기 건강을 고려해 엄선된 재료로 만들어진 주먹밥은 이틀에 걸친 행사 기간 중 총 3천5백여 개가 나누어진다.



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5월 공동기도

하나님, 티 없이 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거리에서 수줍은 얼굴을 한 사람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경쟁사회에서 양버티며 사는 동안 우리는 너무 거칠어졌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무너진 가정들을 일으키시어 사랑의 학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6월 공동기도

하나님, 푸잡없는 세상에 사느라 우리는 지쳤습니다. 인정의 황무지에서 방향합니다. 우물처럼 시원한 샘물을 솟쳐내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가 우물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잇대어 살게 해주십시오. 분단의 고통 속에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평화를 선택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멘.

〈서울YWCA〉 2022년 5·6월호
 통권 제618호 창간일 1966년 3월 1일
 등록번호 다-1554호 발행일 2022년 5월 1일
 발행인 이유림 편집인 김양선 편집위원장 배은경
 편집위원 이재숙 인 미 최혜란 황정혜 편집 민혜경 성지희
 발행처 (사)서울YWCA 주소 04538 서울 중구 명동11길 20
 전화 02-3705-6000 전송 02-3705-6020
 홈페이지 www.seoulywca.or.kr

- 4 나를 살리는 말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건강하게 바름'으로 향하기 위해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자
- 6 Y 이슈
이사·위원 연구모임
- 8 현장 속으로
손소독·손세정 티슈 상품 품질 비교정보
- 10 환경과 여성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 12 예술과 여성
기하학적 추상의 미니멀리스트
카르멘 에레라
- 14 서울Y 소식
3·4월 뉴스
5·6월 행사안내
5·6월 캘린더
- 20 Y센터
UN 여성지위 위원회 참가기
- 22 알림터
- 23 내일빛 캠페인
- 26 후원 소식
- 30 창립 100년 비전
- 32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최용신 농촌계몽 독립운동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정영롱
국제협력위원회 위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 13:1)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은 늘 내게 위안을 준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나의 허물과 연약함과 내 안의 모든 방향을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해주심의 선언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세상을 떠나기 전 예수가 하신 것은 그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이후에 성령을 보내신 것을 생각하면 다시 감격하게 된다.

이 말씀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스무 해 동안 줄곧 좇아온 오랜 표어 말씀이기도 한데, 주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신 것 같이 교회도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자는 결단에서 시작된 것이다. 교회가 최소한 성도들의 안전망이 되어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이기도 하다. 이번 기회에 말씀을 다시 묵상하니 질문들이 생겨났다.

- 예수의 사랑을 닮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 무엇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게 하는가?
-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가능한가?
-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가?

나는 그저 질문에 머물러 있지만 서울Y를 통해 그 답을 발견하게 됨을 고백한다. 서울Y에서 위원 활동을 시작할 때, 가장 신기했던 것은 오랫동안 꾸준히 일하는 다른 위원분들, 회원분들의 동력이 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과 부단히도 모든 사람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려는 서울Y의 절차와 형식이었다.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과 방식 속에도 서울Y가 중시하는 가치들이 드러나 내게 큰 울림을 주었다. 서울Y의 창립 100년을 맞으며 말씀 필사로, 기도로 그 사역에 일부가 됨이 자랑스럽기도 하다.

어쩌면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은 창립 100년을 맞이한 서울Y에게 가장 위도가 되는 말씀일지 모르겠다. 100년을 함께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서울Y와 함께하신다는 뜻일 테니 말이다. 서울Y의 앞으로의 100년이 기대된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같이 끝까지 이 사랑을 전하는 서울Y를 응원하며. ♪



‘건강하게 바름’으로 향하기 위해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자



이송학
이화여대 경영학부 3년
대학·청년YWCA 협의회 서기

“바른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잠언 10:9)

완연한 봄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살아낸 지 3년째, 멈췄던 세상은 느리지만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인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각종 OTT 플랫폼을 통해 한국의 문화예술은 쏟아지는 관심 속에서 그 가치를 널리 인정받았다. <킹덤>에 이어 <지금 우리 학교는>까지 한국 좀비물은 흥행 불패 장르가 되었고, <오징어게임>은 최고 권위의 시상식 주요 부문을 휩쓸며 전 세계적 신드롬을 일으켰다. K-콘텐츠 세계화를 이끄는 한국 작품들을 보고 싶노라면 정말 뿌듯하지만 씁쓸함의 그림자도 커진다. 탄탄한 스토리와 뛰어난 연출 등 세계적인 흥행 배경 뒤에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성을 폭로하는 자극적인 소재가 시청자의 관심을 사로잡은 영향도 크기 때문이다.

인간의 가장 밑바닥까지 드러내는 것이 시청자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게 하는 포인트였겠지만, 안타까움이 앞선다.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서, 선하고 바르기 위해 조심하고, 고민하고, 성찰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옳은 방향을 찾아 행동하는 것을 지겨워하기엔 그 가치가 너무나도 숭고하기 때문이다. 바른길을 걷는 사람은 굽은 길을 걷는 사람보다 분명히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마치 수면 위를 유영하는 오리 가 물속에서는 끊임없이 힘차게 발장구를 치는 것처럼 바른 길을 걷는 과정은 겉으로 보는 것보다 정말 힘들 수 있다. 게다가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말을 내뱉거나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거침없이 솔직하고 당당함”이라는 미명으로

포장하는 사회적 추세 때문에 이 가운데서 올바른 길을 추구하는 것은 보수적이고 고리타분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직설적인 것과 함부로 말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고, 자기존중감에 따른 당당한 태도와 이기심에 따른 무례한 태도도 완전히 다르다. 이러한 차이를 간과하는 순간이 바로 굽은 길로 접어드는 순간일 것이다. 인간의 밑바닥은 모두 제각각일 것이나,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독교다운 삶을 살기 위해 매일 애쓰고 노력해야 평안에 가까워질 수 있다. 무엇이 바른길인지 잘 알아보기 위해 눈앞에 놓인 여러 갈림길을 꼼꼼히 탐색하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우리의 마음을 밑바닥부터 깨끗하고 울곧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꾼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하겠으나 그 노력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끈다는 희망을 가지고 바른 길을 찾아 나가야 한다.

선함과 바름을 추구하고 그에 따라 행하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 태도일 것이다. 옳고 그름에 의문이 들고 헷갈릴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 불완전한 우리가 이처럼 흔들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께 적극적으로 여쭙고 답을 알려주시기를 기도하고, 다시 바른길로 나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써야 한다. 타인을 위하고 선함과 바름을 추구하는 것은 때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힘을 내기 위해서는 ‘마음의 근육’을 단련해야 한다. 무엇이 옳은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며 의문에 대한 정답을 찾기 위해 애쓰는 것, 그렇게 선함으로 나아가며 땀을 흘리더라도 더없이 건강하고 평안한 마음시길 기도한다. ♪

이사·위원 연구모임

서울Y는 2022 이사·위원연구모임을 3월 31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사, 위원, 실무자 약 100명이 함께해 개최예배를 드린 후 주제 강연을 들었다.

올해는 “창립 100년 YWCA 운동 찾기” 특강으로 기독교와 생명운동을 뜻하는 ‘C’에 주목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개회예배를 인도하는 한혜영 부회장



말씀을 전하는 노병균 목사

개회예배는 한혜영 부회장의 인도로 드려졌다. 이은령 이사의 기도에 이어 노병균 목사(초원교회 담임)가 룻기 4장 14-15절로 ‘베들레헴 공동체처럼’이라는 말씀을 전했다. 잘 알려진 나오미와 룻, 보아스 같은 인물 이야기가 아닌 베들레헴 마을, 그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였다.

베들레헴 공동체는 첫째, 험담을 하지 않고 좋은 말을 유통하는 공동체였다.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 대한 뒷이야기를 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았으며 특히 룻에 대해 현숙한 여인(룻 3:11)이라 불렀다. 둘째, 은혜를 남기는 공동체였다. 오늘날로 보면 비정규직이요 외국인노동자라 할 수 있는 룻과 같은 소외된 이들을 위해 이삭, 아니 은혜를 남겼다(룻 2:15,16). 마지막으로, 끝까지 함께 축복하는 공동체였다. 당시 최고의 신랑감이라 할 수 있는 보아스가 소외계층과 다름없는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마을 사람들은 시기하지 않고 축복했다. 제로섬 게임이 아닌 각자에게 주시는 여호와 은혜의 분깃을 깨닫은 자들이기 때문이었다. 노목사는 서울Y가 베들레헴 공동체처럼 좋은 말이 흐르게 하고, 은혜를 남기며 서로가 분깃에 따라 열매 맺는 것을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했다.

서울Y는 해마다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가 함께하는 이사·위원연구모임을 열고 있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민단체의 임무를 다하고자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중지를 모으며 ‘깨어있는 여성이 만드는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연구모임에 함께하고 있는 이사·위원·실무자

주제 강연

환경위기 속 환경불평등, 그리고 ‘공존’

‘호모 에코시스템무스’의 삶을 살자

안윤주 건국대 환경보건과학과 교수·생태독성학자



먼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환경과학 버전으로 풀어 보자.

“태초에 하나님은 생태계(Ecosystem)를 만드셨다. 첫째 날에는 태양에너지를, 둘째 날에는 물, 대기, 토양의 비생물적 환경다매체를, 셋째와 다섯째 날에는 동식물의 생물군집을,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환경다매체에 서식하는 생물들을 보살피서 관리하라고 하셨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는 다양한 생물이 조화롭게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불평등한 지구에 살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환경문제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바젤협약(1992년 발효)으로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이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빈곤한 이데,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가 환경위기로 인해 더욱 큰 피해를 받고 있다. 지금의 환경문제는 환경 난민을 낳고 인권과 평화의 위기 또한 가져오며 미래세대에 강력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인간들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인 플라스틱. 우리 생활에서 플라스틱이 안 쓰이는 곳이 과연 있을까. 음료병은 물론 옷, 마스크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 그런 플라스틱의 다른 이름은 바로 오염물질 콕테일. 어떤 생물체든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 농작물 맥주, 와인, 우유, 심지어 소금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 환경 전체에 퍼져있는 미세플라스틱을

어쩔 수 없이 먹게 된 생물들이 영양 불균형으로 굶어 죽기도 하고 개체 수가 감소하기도 하며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우리 인간들의 건강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세계자연기금(WWF)과 호주 뉴캐슬 대학이 진행한 ‘플라스틱의 인체 섭취 평가 연구(2019)’에 따르면, 우리는 매주 신용카드 1장(5g 정도)에 해당하는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 한 달이면 칫솔 한개 분량인 21g에 이른다.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의식 변화, 제품과 제도 개선, 과학기술적 해법, 정책적 해법 등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

산업화 이전부터 지금까지 축적된 이산화탄소로 인해 지구의 온도가 많이 상승했다. 여기서 1.5도만 더 올라도 지구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는다. 탄소중립, 즉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을 줄여 제로(0)로 만드는 것이 지구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국제사회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룰 것을 약속하고 다양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

뻘한 이야기 같지만, 지금의 위기상황을 제대로 알리고 ‘기후위기’나 ‘탄소중립’과 같은 용어의 정확한 이해를 도우며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재활용 등에 앞장서는 것이 서울Y가 할 일이다. 우리 모두 생태계와 공존하며 살아가는, 생태계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인류인 ‘호모 에코시스템무스(Homo ecosystemous)’의 삶을 살아가자.

상품 품질 비교정보

손소독 티슈는 의약외품, 손세정 티슈는 화장품
사용 목적에 맞게 선택하세요



시험 기간 : 2021년 8-9월

시험 대상 제품(총 22개)

• 손소독 티슈(14개)

깨끗한나라 클린, 누리케어, 닥터스, 닥터아토, 랩신 브이쓰리, 아이깨끗해, 에이비와이, 이자팜, 제일참 메디와이퍼, 크리넥스 안심, 크린소독티슈, 퓨어덤, 핸디닥터, 홈플러스 시그니처

• 손세정 티슈(8개)

누누베베, 닥터아토 손&입 전용, 달곰이, 릴리프, 잘풀리는집 네이처케어, 케어티슈, 페넬로페, 퓨어덤 62

코로나19 이후, 개인위생 방역이 중요해지면서 마스크, 손소독제, 핸드워시 등 위생용품의 관심이 높아졌다. 그중 티슈형 제품은 사용과 보관이 편리해 사용이 늘었으며, 손소독용과 손세정용으로 판매되고 있다. 두 제품은 손, 피부 등 인체에 직접 사용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손소독 티슈는 살균 효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의약외품'이고, 손세정 티슈는 세정·청결이 목적인 '화장품'이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두 제품의 차이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Y는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 판매 중인 22개 제품(손소독 티슈 14개, 손세정 티슈 8개)을 비교·분석했다. Y 정리 김진아 소비자환경팀 활동가

손소독티슈 VS 손세정티슈

손소독티슈	구분	손세정티슈
손·피부 살균소독	용도	손·피부 세정 또는 청결
의약외품	분류	화장품
약사법	규제법률	화장품법
안전기준 적합	분석결과	안전기준 적합 일부효과 과장



시험·평가 결과

◎ 손소독 티슈의 살균·소독 기능

손소독 티슈에는 세균의 살균·소독 효과를 위한 주성분으로 에탄올 또는 벤잘코늄염 화물을 첨가한다. 주성분 함량이 기준보다 낮을 경우 소독 효과가 떨어지고, 지나치게 높으면 오히려 살균력이 떨어질 수 있어 각각의 제품에 해당 성분이 적정량 들어있는지 비교·분석했다. 조사 결과 14개 제품 모두 에탄올 또는 벤잘코늄염화물의 함량이 기준에 적합*했다.

* 원제품의 주성분 함량은 표시량 대비 90~110%이면 적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유해화학물질 등 안전성

전 제품(22개)에서 CMIT, MIT, 메탄올 등 유해화학물질*은 불검출되었으며, 보존제로 사용된 물질도 의약외품과 화장품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 파라벤 7종, CMIT, MIT, OIT, 트리클로산, 페녹시에탄올, 벤조산나트륨, 사카린, 1,4-디옥산, 벤젠, 형광증백제, 메탄올

◎ 표시·광고사항 검토 결과

손소독 티슈(14개)의 항균·살균 효과 표시에 대해 검토(항균·살균효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광고 사항과 일치했다.

손세정 티슈(8개)는 살균·소독 기능을 가진 제품이 아님에도 소량의 에탄올 함유 사실을 강조한 제품이 많았다. 5개 제품(누누베베, 릴리프, 잘풀리는집 네이처케어, 케어티슈, 퓨어덤 62)이 '에탄올 함유'를 표시·강조하였으며, 특히 1개 제품(퓨어덤 62)은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에탄올 함량(56.9%)이 높게 나타났다. 또 '에탄올로 세정한다*', '살균테스트 완료***' 등 근거 불확실하게 과장한 제품도 있었다.

* 릴리프 손청결 티슈, 케어티슈, 퓨어덤 62 손세정 청결티슈

** 달곰이 손세정 물티슈 : '살균테스트 완료' 광고 표시 부적합, 현재 '항균'으로 표시정보 개선

제품 선택 및 사용 요령

- ◎ 소독과 살균의 효과가 필요하다면, 주성분인 에탄올 또는 벤잘코늄염화물 함량을 법적 기준 안에서 관리하는 의약외품인 손소독 티슈를 선택하세요.
- ◎ 손소독 티슈에는 화학물질이자 살균·소독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시에는 눈, 구강, 점막과 같은 부위에는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 손세정 티슈는 일반 물티슈와 같은 제품으로, 손을 닦는 것이 주 용도이며 항균이나 살균, 소독 등의 효과를 보증하는 제품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구미정
기독교 인문학자
숭실대 기독교대학원 초빙교수
이은교회 목사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지 않도록 지키라

땅을 가는 일은 농부의 몫이다. 농부는 씨를 뿌리기 전에 땅부터 갈아엎는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지으신 첫 사람의 정체는 농부라고 말한다. 사람의 뿌리가 '농'에 있다고 선포한다. 그렇다면 바로 앞에 나오는 이 말씀은 뭐란 말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창세기 1:26-28)

이 문장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지상에서 사람의 지위란 신을 대리하는 대단한 자리이고, 따라서 사람에게는 마치 '007 살인면허'처럼 사람 이외의 피조물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전적 권한이 주어져 있다는 의미로 읽히기 쉽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읽는 건 잘못 읽는 수준을 넘어 위험한 독서다.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을 마르두크와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쳐도 '정복'이라는 단어에서 제국주의 냄새가 솔솔 풍기는 건 어쩔 수 없다.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 '카바쉬'는 어떤 사물을 발로 꼭 밟아 누르는 동작을 암시한다. 가나안 땅을 '정복'(민수기 32:22, 29; 여호수아 18:1 등 참고) 한다고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였다. 한데 이때의 정복은, '기생' 리합의 경우에서 보듯이, 성 착취와 계급 지배가 엄존하는 가나안 땅을 자유롭고 평등한 해방구로 변화시켜야 할 사명을 함축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땅에 퍼져 나감으로써 땅이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지 않도록 지키라는 뜻이다.

'빵과 장미'가 다 필요한 사람

첫 사람의 이름이 오죽하면 '아담'일까? 아담은 특정 개인의 고유한 이름이 아니다. 그

저 '아다마'(흙/땅)에서 왔기에 아담일 뿐이다. 히브리어 아담은 '사람'을 뜻하니, 인류 전체를 싸잡는 이름이라 해야 맞다. 이렇게 성서는 땅과 사람의 공동성 혹은 연대성을 강조한다. 땅은 하늘 아래 있어야 한다. 땅이 하늘만큼 높아지면 생명의 공간이 사라진다. 그래서 땅을 꼭 밟아 누르는 사람이 필요하다. 땅이 높아지지 않도록 잘 밟아서 낮추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 동시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가 바로 땅을 가는 사람이다.

'간다'는 우리말을 영어로 하면 '컬티베이트'(cultivate)이다. 이 단어는 '문화'를 의미하는 '컬처'(culture)와 말 뿌리가 같다. 그러니까 '땅을 갈라'는 명령은 '문화를 가꾸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은 동물의 한 종류이지만, 여타 동물과 구별된다. 동물은 주어진 본

높아지려는 욕망, 권력을 잡고 싶은 의지,
스스로 신적 존재가 되어서 법과 제도와 규칙을 만들고
윤리와 도덕을 정하고 싶은 욕구, 누구에게나 있는 그 마음이
사람을 타락으로 이끈다고 성서는 꼬집는다

성 그대로 살아가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 차이를 드러나게 메꾸는 게 문화다. 빗대어 말하면, 사람에게에는 '빵과 장미'(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슬로건)가 다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첫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숙제를 잘 풀지 못했다. 위로 올라가려는 욕심, 힘을 갖고 싶은 욕망에 굴복하고야 말았다. 이른바 '선악과' 이야기가 전하는 진실이 그것이다. 이 대목에서 여자의 역할이 주도적으로 등장하는 게 흥미롭다. 남자가 사람의 표준이던 당대의 사회 통념을 고려할 때, 이 이야기가 지닌 해체적 성격을 더욱 선명하게 알 수 있다.

선과 악을 알고 싶은 욕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리에 여자는 없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창세기 2:16-17) 이 금령은 남자에게 주어졌다. 여자

는 나중에 지어졌으니, 남자가 여자에게도 이 금령을 토씨 하나 빠뜨리지 말고 정확히 전달했어야 옳다. 땅과 사람이 한 데 엮여 있듯, 남자와 여자 또한 공동운명으로 결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창세기 저자는 이 뜻을 '갈빗대' 이야기에 담아 시처럼 아름답게 전한다.)

한데 남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말 전달 놀이'를 해본 사람은 안다. 말이라는 게 원래 한 다리 건널수록 자꾸 틀리게 전달된다는 걸. 여자는 남자에게 이렇게 전해 들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창세기 3:2-3) '반드시'가 빠져 있다!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가 덧붙여졌다!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들으면 '만지면 좀 어때서'라고 반발하기 마련이다. 그 마음이 '반드시'를 지워버렸다. 이 틈새를 용케 비집고 유혹이 끼어든다. (여기서 뱀이 등장하는 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나오듯이, 고대인들 사이에 뱀이 지혜의 상징이어서 그렇다.) 여자는 “하나님처럼 되어서”(창세기 3:5) 선과 악을 알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창세기 3:6) 남자는 여자를 말릴 생각이 전혀 없다. 남자의 욕망도 여자와 똑같기 때문이다. 높아지려는 욕망, 권력을 잡고 싶은 의지, 스스로 신적 존재가 되어서 법과 제도와 규칙을 만들고 윤리와 도덕을 정하고 싶은 욕구, 누구에게나 있는 그 마음이 사람을 타락으로 이끈다고 성서는 꼬집는다.(다음호에 4편이 이어집니다) ♪

* 창립 100년을 맞아 YWCA 정체성인 기독교여성애 주목하고 에코페미니즘을 바탕으로 신학과 윤리를 다시 바라보며 모든 생명이 조화롭게 사는 세상을 모색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칼럼 본문을 오디오로
들을 수 있습니다



구미정 교수는 일상의 소소한 풍경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 찾기를 즐긴다. 진지하고 심각한 신학 풍토에 자유롭고 경쾌한 이야기로 생명을 수놓아가는 기독교 인문학자. 지은 책으로는 「한 글자로 신학하기」, 「두 글자로 신학하기」, 「그림으로 신학하기」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교회 다시 살리기」, 「작은 교회가 답이다」, 「생명의 해방」 등이 있다.

기하학적 추상의 미니멀리스트 카르멘 에레라 Carmen Herrera



최혜란
홍보출판팀 위원
후마니타스아카데미 원장



카르멘 에레라 Carmen Herrera
(1915. 5. 30-2022. 2. 12)
2016년 휘트니 미술관 개인전에서
자신의 작품 「Blue Monday」 (1975) 앞에서

올해 2월 12일 만 106세로 타계한 카르멘 에레라는 긴 세월의 작업 경력에도 불구하고 89세가 될 때까지 무명 화가였다. 2004년 중남미 출신 화가들의 작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뉴욕의 한 갤러리에서 전시 작가 세 명 중 한 명이 빠지게 되자 대신 참여시킨 사람이 에레라였다. 이 전시를 계기로 에레라는 평론가들의 주목을 받고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인정받으면서 89세에 생애 처음으로 작품이 팔리게 된다. 그 후 90대에 세계적 거장의 반열에 오르면서 100세에 미국에서 첫 개인전을 열게 되고 이때 모든 전시작

품이 뉴욕현대미술관이나 메트로폴리탄미술관 같은 유수의 미술관에 팔렸다.

쿠바 출신의 여성 화가

에레라는 1915년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5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나 유복하지만 북적대는 환경 속에서 자신을 주장하기 위해 싸워야 하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의 아버지 안토니오 에레라는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전쟁 동안 쿠바 군대의 대위로 복무한 후 쿠바 독립 이후 최초 신문인 엘 문도(El Mundo)라는 신문의 편집장이었으며, 어머니는 아버지의 신문사 기자였다. 에레라는 8세가 되던 해 페데리코 에델만 핀토 교수에게 미술 개인지도를 받았으며 그의 가르침은 에레라 평생의 회화에 대한 열정의 뿌리가 되었다. 에레라는 아바나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했으며 이때의 공부는 이후 그의 기하학적 추상 작업의 근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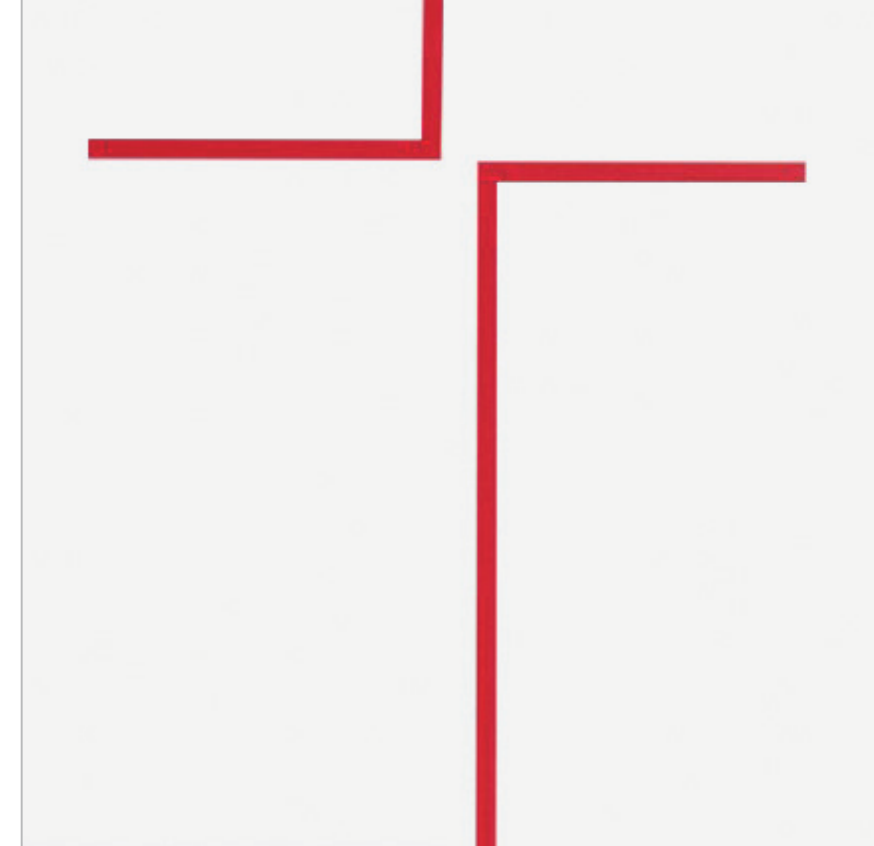
에레라는 1937년 쿠바로 여행 온 뉴욕의 영어교사 제시 로웬탈(1902-2000)을 만나 2년 후 결혼하고 뉴욕 생활을 시작한다. 1943년 뉴욕에서 그

림과 판화 공부를 시작하고 미술관을 돌아다니지만 남성 중심이며 백인 중심인 뉴욕보다 아바나가 자신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었으리라 느낀다. 1948년부터 파리에 5년간 머물면서 바우하우스와 러시아 절대주의 화파의 영향을 받아 기하학적 추상 작업을 하기 시작하고 나뭇 화단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아 1950년 쿠바 여행에서 작품을 선보이지만 대중은 그의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다. 파리에서의 장기 체류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된 에레라 부부는 1953년 다시 뉴욕으로 돌아오고 이때부터 에레라는 자신만의 실험을 시작하면서 건축적 구조나 도시 풍광에서 오는 영감을 색과 선을 단순화하여 표현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한다.

1950년대 미국의 화단은 추상표현주의가 대세로 잭슨 폴록이나 월렘 드 쿠닝, 마크 로스코 등의 뜨거운 추상 화가나 차가운 추상을 하는 바넷 뉴먼이나 에스워스 켈리 같은 화가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흑과 백, 노랑과 파랑, 흰색과 초록 등 단 두 가지 색상과 삼각형을 기본으로 하는 기하학적 구조의 극단적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에레라의 작품은 뉴욕 미술계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당시만 해도 미국 미술계는 남성 중심이기도 했지만 쿠바 출신의 여성 화가라는 프로필은 에레라가 차별받는 원인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100세가 될 때까지 어느 화랑에서도 개인전을 열 수 없었다.

미니멀리즘이 창조하는 상상력

「The Way(길)」라는 작품은 2018년 에레라가 103세 되던 해 완성한 작품으로 기본색과 형태조합의 상상의 가능성을 탐구한 작품이다. 밝은 회색 바탕에 거의 맞닿



「The Way(길)」, 캔버스에 아크릴릭, 432x432cm, 2018. 개인소장

을 듯 그려진 붉은 두 선은 도시의 건축물, 길, 코너, 십자가, 사각형, 삼각형 등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상상력을 이끌어낸다. 따라서 작품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에 따라 다양한 예술 요소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 또한 우리가 작품을 바라볼 때 제목도 연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길」은 에레라의 건축적 경험과 연결시켜 생각할 수도 있고 에레라의 종교적 신념과 연결 지을 수도 있다. 에레라는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나 전 생애를 기독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작품을 영적인 깨달음과 연결 지어볼 수도 있다. 최소라는 미니멀리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창조할 수 있는지 시사하는 작품이다.

에레라는 자신을 평생 지지해주던 남편의 사후에도 다락방에서 매일 9시부터 작업을 하는 규칙적 생활을 지속했다. 그림이 처음 팔리고 인정받기 시작하자 그는 “기다리면 언젠가 버스는 온다. 나는 100년 가까이 기다렸다.”는 말을 남겼다. ♪

QR코드를 스캔하면
칼럼 본문을 오디오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술과 여성

예수님과 수난의 길을 걸어간 여성들 '사순절 40일 영성 리추얼'

서울Y는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사순절 40일 영성 리추얼 "예수님과 수난의 길을 걸어가는 여성들">을 진행했다. 사순절 기간 여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예배, 회개와 기도, 나눔, 절제와 금식 등의 경건 생활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순례의 여정이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감당하셨던 수난의 길을 함께 걸으며 절제 없이 누리고 먹는 삶, 아파하는 걸 사람과 지구를 외면한 삶, 나에게만 관대하고 이웃에게 인색한 삶, 차별과 혐오, 불평과 분노를 일삼는 삶, 여성들의 폭력에 무감각한 삶을 참회하고, 개인과 공동체가 연대하여 공동체적 삶을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신앙, 살고 살리는 기독교정통주의의 가치를 삶에서 실현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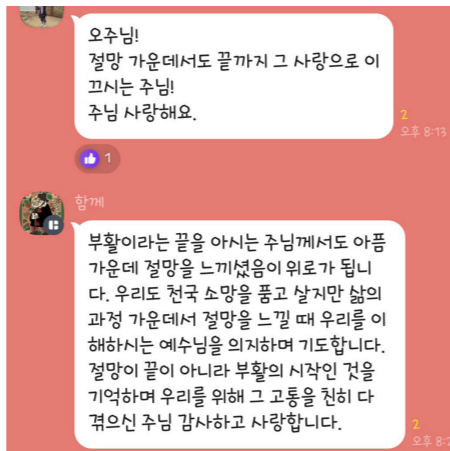
40명의 회원들이 리추얼에 참여해, 40일 동안 주어진 미션을 성실히 실천하고 나누며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분투했다. '사순절 40일 영성 리추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일 짊어지는 것이었다. 월요일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날에는 이웃 공동체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결사관들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졌다. 화요일 '나눔'의 날에는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들에게 빵과 장미주기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하였고 나눔의 실천을 통해 이웃을 향한 희생과 사랑의 십자가를 짊어졌다. 수요일 '묵상'의 날에는 평화교회연구소 사순절 묵상집 <이 길 끝에, 마침내 부활>으로 묵상하며 예수님이 묵묵히 홀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 걸었다. 목요일에는 '검은 목요일 캠페인'에 동참했다. 검은 목요일 캠페인은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시작된, 성폭력과 젠더폭력에 저항하는 운동으로 서울Y는 매주 목요일에 검은 옷을 입고 성폭력·젠더폭력 모든 형태의 폭력에 저항하는 일상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금요일 '탄소금식'의 날에는 지구 공동체의 아픔을 외면했던 것을 뉘우치며 지구를 살리는 습관을 지닐 수 있는 거룩한 실천을 이어나갔다. 토요일 '절제'의 날에는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만들고 중독으로 이끄는 생활을 내려놓으며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했다.

서울Y는 회원들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일상에서 기꺼이 짊어짐으로써 십자가의 은총을 더욱 크게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온전한 삶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4월 17일 부활주일에는 사순절 40일 영성 리추얼을 마무리하며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성들의 예배 "부활을 살아내는 여성들"'에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여성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영성을 살아내고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나눌 것을 다짐했다. 정리 이기쁨 여성운동팀 간사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한 '검은 목요일 캠페인'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는 참여자들'

영등포

(주)코스콤 후원금 전달식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는 4월 13일 (주)코스콤과 함께 경력단절여성 대상 직업훈련 '디지털큐레이터 양성과정'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디지털큐레이터 양성과정은 소상공인의 원활한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홍보 마케팅 교육이다. (주)코스콤은 경력단절여성의 자신감과 전문성 강화를 응원하며 2019년부터 본 과정을 매년 후원하고 있다.



봉천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봉천종합사회복지관은 4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한 연극놀이 '두근두근'을 진행하고 있다. 5-7세 유아반과 8-10세 아동반 두 개반을 운영 중이며 총 30회에 걸쳐 12월까지 계속된다. 30년 이상 경력의 전문 배우가 강사로 나서 아동의 표현력과 발표력을 향상시키고 학교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강남

또래상담동아리 '아띠'

강남청소년수련관 학교폭력예방센터는 3월 19일 올해 신설된 또래상담동아리 '아띠'의 첫 모임을 가졌다. 응집력 강화 활동, 임원 선출, 동아리 규칙 수립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아띠'는 친한 친구라는 의미의 순우리말로, 또래상담을 통해 친구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8명의 청소년이 함께하고 있다. 앞으로 또래 상담자의 시각을 반영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내 학교폭력 예방과 또래 존중문화를 조성해 나가길 기대한다.



노원

직종별 홍보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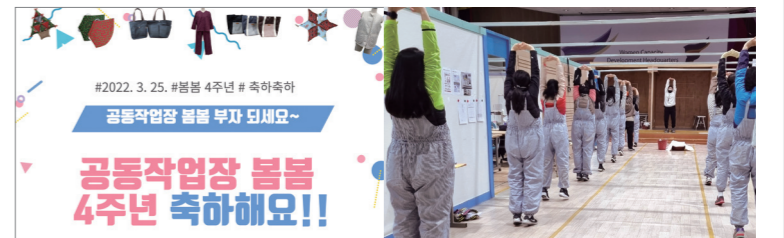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3월 31일 직업훈련 직종설명회 동영상을 촬영, 4월 12일부터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고부가가치직종 '스마트융합콘텐츠메이커', '(온라인플러스) ERP회계인사전문가' 과정을 비롯한 총 8개 과정으로, 직업훈련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예정이다.



누리봄

'봄봄' 서울시 기업인증

누리봄 공동작업장 '봄봄'이 3월 14일 서울시 여성기업으로 인증 받았다. 이로써 봄봄은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한편 봄봄은 3월 25일 개업 4주년을 맞았으며, 최근 경기일자리센터 도배기능사반 도배복을 상시적으로 납품할 수 있게 되었다.





창립 100년 중보기도회

서울Y는 창립 100년을 맞이하며
중보기도회를 매월 온라인으로 연다

	5월	6월
• 일시	5월 26일(목) 11:00	6월 23일(목) 11:00
• 주관	사회운동국	나눔소통국 법인운영국 돌봄과살림센터
• 문의	02-3705-6064	02-3705-6043

여성청년 글로벌 평화리더십 프로그램

국제운동팀은 여성청년과 글로벌 이슈에 대한
문제의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평화 실천 활동을 위한
관심과 여론을 확대하고자 한다.

- 국제분쟁, 기후위기, 여성의 몸을 주제로 한 오피니언 리더 강연
- 글로벌 이슈 해결 실천 방안 토론
- 여성청년 후속 네트워킹 모임

회차	일시	주제
1회	4월 27일(수) 15:00-17:00	우크라이나-러시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이해 구정은(국제 전문 저널리스트)
2회	5월 11일(수) 15:00-17:00	우크라이나의 목소리 올레나 쉘겔 (한국외대 교수)
3회	6월 15일(수) 15:00-17:00	기후위기와 싸우는 우리의 자세 위니 체체(케냐 기후운동가)
4회	7월 13일(수)	기후위기를 해결할 여성리더십 아테나 페렐타 (A caring Economy 저자)
5회	9월 14일(수)	여성할례를 멈추기 위한 우리의 연대가 필요하다 Desert Flower Foundation
6회	10월 12일(수) 18:00-20:00	이라크에서 미안마까지 전쟁도구가 된 여성의 몸 크리스티나 램 (관동당한 몸 저자)

• 참가 신청 링크 <https://bit.ly/3vjBxum>

• 문의 02-3705-6047

* 전 강좌 참여 시 수료증 수여



신규프로그램

노원 • 문의 02-951-0187

과정명	일정
스마트융합콘텐츠메이커	5월 9일(월)-8월 11일(목) (월-금) 9:00-14:00
연극놀이지도사	5월 9일(월)-7월 14일(목) (월-금) 9:30-13:30
방과후코디네이터	5월 23일(월)-7월 15일(금) (월-금) 14:00-18:00

영등포 • 문의 02-858-45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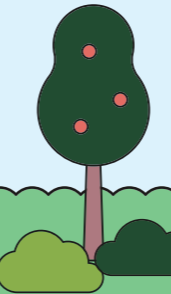
과정명	교육기간
초등돌봄교사 & 키움코디양성	5월 11일(수)-7월 13일(수) (월-금) 9:30-13:30 *직종설명회 4. 26(화) 11:00
세무회계사무원	5월 26일(목)-9월 2일(금) (월-금) 14:00-18:00 *직종설명회 5. 12(목) 16:00
온라인홍보를 위한 콘텐츠디자인과정	6월 23일(목)-8월 30일(화) (월-금) 9:30-13:30 *직종설명회 5. 25(수) 15:00

* 교육비 노원·영등포 과정별 각 10만원
(수료 시 5만원 환급,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 시 5만원 환급)

2022 서울YWCA 창립 100년 회원걷기대회

기억하GO 나아가GO

5. 14(토) - 5. 22(일) 9일간



참가
신청

참가
방법

후원금
안내

대상 서울YWCA 회원 그리고 시민 누구나
참가비 5,000원 (1인)
농협 317-2021-0706-61 사단법인 서울YWCA
* 참가비 확인 후 기념품이 제공됩니다(개별발송 또는 방문수령 가능)
신청방법 서울YWCA 홈페이지 ▶ 공지사항 ▶ 2022 서울YWCA 회원걷기대회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참가비 납부

걷기 기간 5. 14(토) - 22(일) 9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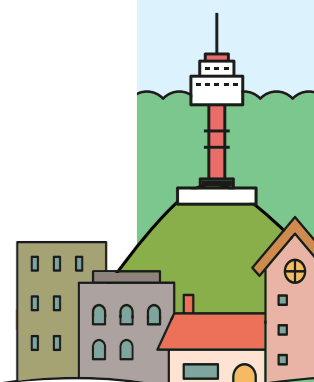
- 참가 신청 후 기념품 수령
- 걷기 기간 동안 자유롭게 걷기
- 인증샷 찍기
- 인증샷 업로드
- 자율 후원 (예) 1만보 걷고 1만원 후원

신청문의 02-3705-6032, 6000



신청바로가기

2022 회원걷기대회 후원금은 (사)서울YWCA 창립 100년 내일빛 기금으로,
보호종료청소년·가정폭력피해여성·기후위기 재난피해 빈곤 어르신 지원과
서울YWCA 다양한 활동을 위해 사용됩니다



CALENDAR

2022 **5**

월	화	수	목	금	토
2	3 위원회 재정부 11:00 장학 13:00 · 누리봄 가족애발견 18:00	4 · 봉천 어버이날 행사 10:00	5 어린이날	6 · Y-틴 C.A (정신여중) 13:20	7 · Y-틴 협의회 10:00 · 피스톡톡 11:00 · 싱크머니 정기모임 13:00 · 그린Y 정기모임 13:00
9 위원회 역대이사 11:30	10 이사회 10:00 위원회 기도분과 13:00 행사분과 13:00 회원모금분과 13:00	11 · Y-틴 C.A(이화여고, 18일) 14:20 · Y-틴 C.A(명지고, 25일) 14:20 · 월간 세미나 여성평화리더십 15:00 · 미디어 모니터단 회의 (25일) 19:00	12	13	14 창립 100년 회원걷기대회 5. 14 - 22
16 위원회 평생체육팀 11:00	17 위원회 노원Y 11:00 누리봄 11:00 소비자환경팀 11:00 여성능력개발팀 11:00 영등포Y 11:00 청소년팀 11:00 홍보출판팀 11:00	18 위원회 시설운영사업팀 11:00 회원활동팀 11:00	19 위원회 여성참여팀 10:30 특별회원 신입교육 가사돌보미·아기돌보미 10:00 간병사 13:00	20 위원회 강남Y 11:00	21 위원회 국제협력팀 10:30 · 대학·청년Y 협의회 10:00 · 청소년팀 연합인준식 13:00 · 강남 청소년어울림마당 (~31일)
23 위원회 봉천Y 11:00	24	25 위원회·재교육 요양보호사 16:00	26 창립 100년 중보기도회 11:00	27	28 · 강남 청소년운영위원회 10:00 · 온새미로 정기모임 13:00 · 울력 정기모임 13:00 · 카다리학교 정기모임 13:00
30	31 위원회 선거제도개선 9:30 인사 11:00 임원 12:00				

CALENDAR

2022 **6**

월	화	수	목	금	토
		1 2022 지방선거	2	3 · Y-틴 C.A (정신여중) 13:20	4 · Y-틴 협의회 10:00 · 피스톡톡 정기모임 (18일) 11:00 · 그린Y 정기모임 (18일) 13:00 · 싱크머니 정기모임 (18일) 13:00 · 장학생간담회 13:00
6 현충일	7 위원회 재정부 11:00	8 · Y-틴 C.A(이화여고) 14:20	9	10	11 위원회·재교육 아기돌보미·산후조리사 10:00 요양보호사 13:00 가사도우미·간병사 14:00 · 강남 청소년운영위원회 10:00
13 위원회 역대이사 11:30	14 이사회 10:00 위원회 기도분과 13:00 행사분과 13:00 회원모금분과 13:00	15 위원회 시설운영사업팀 11:00 회원활동팀 11:00 · Y-틴 C.A (명지고) 14:20 · 월간 세미나 여성평화리더십 15:00 · 누리봄 슬기로운 미디어생활 16:00	16 위원회 여성참여팀 10:30 특별회원 신입교육 가사돌보미·아기돌보미 10:00 간병사 13:00	17 위원회 강남Y 11:00	18 위원회 국제협력팀 10:30 · 대학·청년Y 협의회 10:00 · 온새미로 정기모임 13:00 · 울력 정기모임 13:00
20 위원회 평생체육팀 11:00	21 위원회 노원Y 11:00 누리봄 11:00 소비자환경팀 11:00 여성능력개발팀 11:00 영등포Y 11:00 청소년팀 11:00 홍보출판팀 11:00	22 · 미디어 모니터단 회의 19:00	23 창립 100년 중보기도회 11:00	24	25 · 카다리학교 정기모임 13:00
27 위원회 봉천Y 11:00	28 위원회 인사 11:00 임원 12:00	29	30		

2022년 66차 UN 여성지위 위원회 참가기

여성 청년들에게 지식과 용기 전하고파



* UN 여성지위 위원회 유엔 회원국의 성평등 달성과 여성 권한 강화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구. 2022년 제66차 위원회 핵심 주제는 기후위기, 환경, 재난위험경감 정책 및 프로그램과 관련한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이다.

서울Y 국제운동팀은 2022년 여성청년 글로벌 평화리더십 육성을 목표로 '여성청년 글로벌 평화리더십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그러던 중 3월 15일부터 22일까지 66차 유엔 여성지위 위원회(CWS,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에 참석하게 되어 여성들의 리더십과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 사례, 세계 정부의 기후위기 극복 의지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프로그램에 어떤 내용을 반영해야 할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각 국가별 페미니즘 관점의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는 세션이 있었다. 스웨덴에서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ODA 성과관리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국가의 이익에 맞추기보다는 현지 여성들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네덜란드 외교부 담당자는 개도국 여성들이 기후위기로 삶의 질이 하락하고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가에서 여성들이 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우선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부르며 그에 걸맞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네덜란드 외무부 장관과 국내 현 정치 상황이

겹쳐지면서 얼마나 더 먼 길을 가야 글로벌 스탠다드에 조금 이나마 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씩씩한 기분이 들었다. 일본Y, 팔레스타인Y가 준비한 수준 높은 세션에 참석하며 YWCA의 일원이라는 것에 새삼 자랑스러웠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지진 발생 시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을 배려하지 못한 후속 대책에 YWCA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사회적 약자의 재난 회복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과정이 중요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그곳이 바로 시민사회단체들이 채우고 감시해야 할 영역이라는 사실을 통감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여전히 이스라엘과의 영토 분쟁으로 이동과 상업에 제약이 있고, 이는 심각한 사회적 차별을 야기하고 있었다. 거기에 뿌리 깊은 가부장제까지 더해져 여성의 인권을 논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팔레스타인Y는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는 곧 성평등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비전 아래 젊은 여성들을 위한 여러 직업 교육을 펼치고 있었다. 정치적 혼란, 분쟁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신하는 활동가,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쩌면 느슨해졌을지도 모를 나의 신념과 의지를 다잡을 수 있었다.

여성지위 위원회에는 페미니즘, 약자 우선 정책, 기후위기 대응 등 '늘 언제쯤 이를 수 있을까?'하고 자문했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있었다. 그들과의 연대감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사회문제와 싸우는 일상은 힘들고 변화는 더디겠지만, YWCA를 통해 많은 여성 청년들에게 기후위기를 멈추고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드는 지식과 용기를 나누고 싶다. 앞으로도 YWCA가 살아 움직이는 연합체라는 느낌을 자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가까운 미래에 뉴욕 유엔 여성지위 위원회에서 발제할 날을 기대해본다. Y 정리 김진주 국제운동팀 간사

IOPE



193만 번의 경험,
눈으로 확인한 주름 개선 효과
레티놀 엑스퍼트 0.1%

회원 소식

박위자 명예이사
3월 5일 배우자상

배정미 청소년위원회 위원
3월 12일 시부상

이선미 회원활동위원회 위원
3월 12일 시모상

김옥자 평생체육위원회 위원
4월 20일 배우자상

서울YWCA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맞춤 서비스

우리나라 최초의 간병사 교육·양성 기관인
서울YWCA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함께
전문적인 요양보호사를 어르신 댁으로 파견하여
방문요양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 상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어르신
내 용	신체활동·일상생활·가사 지원, 외출 동행, 말벗, 간병 서비스
근무 시간	• 오전·오후(3-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 9-18시 (8시간) 출·퇴근 서비스 • 월-토 (24시간) 입주 서비스

※ 요양보호사·간병사 수시 모집합니다

상담문의 02-855-8826 / 010-3480-8826

2022년 새롭게 선출된 임원을
알려 드립니다

서울돌봄과살림센터협의회

가사돌보미	고문 최준자 회계 김정옥	회장 성금자 서기 이영순	부회장 손정열 봉사부장 이영희
산후조리사	고문 정진남 회계 신명숙	회장 김선재 봉사부장 김진자	부회장 진학심
아기돌보미	고문 정애경 회계 이미자	회장 민경희 서기 박경희	부회장 차양숙 봉사부장 백혜열
간병사	고문 광석순 회계 김옥매	회장 박미자 서기 장길례	부회장 최규진 봉사부장 김봉진

생활돌보미 교육생 모집

서울돌봄과살림은 신입 돌보미회원을 모집합니다.
교육 이수 후 구비서류를 제출한 회원은 취업까지 연계가 가능합니다.

직종	대상	교육일	교육비
가사돌보미	65세 이하 여성	5월 19일(목) 6월 16일(목) 10:00-18:00	3만원
다누리 가사돌보미	한국인과 결혼한 이민여성		
아기돌보미	60세 이하 여성		
세이프맘			10만원
간병사	60세 이하 여성 관련자격증 소지자 우대	5월 19일(목) 6월 16일(목) 13:00-18:00	4만원

- 신청 교육일 3일 전까지 전화신청
- 문의 02-3705-6013~4 / 02-3705-6071

(사)서울YWCA 창립 100년 기금 후원
이웃의 내일을 밝혀 주세요



힘들고 지칠 땐 작은 빛 하나에도 용기를 얻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과 사랑으로 우리 이웃의 내일을 밝혀주세요

서울YWCA 나눔 100년

희망을 전하는 내일 빛이 되어주세요

Y 기금

자립준비청소년 지원

- 자립준비 교육 (금융·진로·인문학교육 등)
- 1:1 멘토링 (정서적 지지·일상생활 가이드)
- 장학금·생활안정자금 지원
- 법률 자문 연계

W 기금

가정폭력피해여성 지원

- 가정폭력피해여성 공동작업장 상시판매소 지원
- 가정폭력피해여성 직업훈련
- 가정폭력피해여성·아동 생활 지원

C 기금

기후위기 재난피해 빈곤노인 지원

- 혹한·혹서기 냉난방 물품, 전기·가스요금 지원
- 건강키트, 영양식사 제공
- 기후재난 긴급지원 (의료품, 생존기금 등)

A 기금

서울YWCA 후원

- 서울YWCA 고유 목적사업 후원 (여성인권·기후위기대응·청소년 지원사업·평화운동 등)
- 지속가능한 서울YWCA를 위한 후원

후원금
입금계좌

농협은행

317-2021-0710-91
사단법인서울와이더블유씨에이

문의 02-3705-6034

캠페인 소개
영상 보기



내일빛 사람들

창립 100년 기금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서울YWCA 창립 100년을 수놓는 내일빛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나눔으로 이웃의 내일을 밝힌 선한 사람들을 지금 만나보세요!



후원 바로가기

2022년 4월 10일 기준

개인

강민아	김경화
김명희	김숙희
김양선	김영심
김은희	김재신
나미정	민혜경
박두영	박위자
박진선	송길례
양선희	우영숙
이강희	이경연
이연배	이유림
이종미	이주영
이행자	전현숙
정수경	정영룡
조연신	조종남
최 봄	최수경
한혜영	

단체

꿈이있는교회
봉천종합사회복지관위원회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
정동제일교회
한국직업능력진흥원

봉천종합사회복지관위원회



서울YWCA 100년을 향한 걸음을 응원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



이화는 와이를 항상 응원합니다!

정동제일교회



한국직업능력진흥원



YWCA 창립 100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교육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선 서울YWCA 사무총장



서울YWCA의
새로운 100년의 출발점,
내일빛과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김영심 뽀띠통 대표



100주년 축하드려요~
뜻 깊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YWCA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김은희 봉천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니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11)
100주년을 향한 소망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이 더 또렷이
나아가길 바랍니다

김재신 서울YWCA 이사



오랜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선한 영향력을 다해온
서울Y와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지나온
100년보다 앞으로
100년이 더욱 소중하리~

민혜경 서울YWCA 국장



서울YWCA 앞으로의
100년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에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박위자 서울YWCA 명예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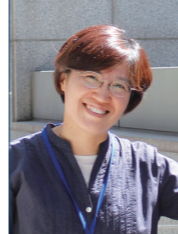
서울Y 100년을
축하합니다.
지금껏 걸어온 길처럼
앞으로 걸어가길 길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송길례 서울YWCA 이사



주님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세워지는 곳, 세상의 아픔을
낮게 하고 상처를 꿰매주는 곳,
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
그리스도 사랑이 배어있는
포근한 곳, 서울Y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선희 서울YWCA 전 사무총장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태 10:8)
주님께, 서울Y에서, 거저
받은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거저 받은 것을
아주 조금이라도 나누고
심은 마음을 담아봅니다

우영숙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100주년 축하 모금
내일빛으로
오늘을 빛나게
살 수 있도록
따뜻한 빛이 되기를...

이강희 아크벤처스 대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경연 서울YWCA 이사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청지기 서울YWCA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연배 서울YWCA 증경회장



섬김과 나눔의
서울Y!
새로운 100년을
축하합니다
Blessing,
서울YWCA!

이유림 서울YWCA 회장



화명의 뜻을 일구는
평화의 딸들의 새로운
백년을 응원하며
동참합니다.
Begin again,
Seoul YWCA!!

이주영 서울YWCA 증경회장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Y가 되어
이웃과 이 나라가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행자 서울YWCA 증경회장



서울Y의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길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정수경 서울YWCA 이사



서울Y 내일빛 후원을 통해
우리 사회 어두운 곳까지
한줄기 하나님 사랑의 빛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조연신 서울YWCA 부회장



나눔은 사랑의 메아리입니다
평화와 화합의 증보자
Y를 기대하며
새로운 100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합니다!
Another Best Century,
서울YWCA!

조종남 서울YWCA 직전회장



(사)서울YWCA
창립 100년을 맞아
세상을 향해 빛을 환하게
비추는 등대역할을
미력하지만 계속 함께할 수
있어 참 행복합니다

한혜영 서울YWCA 부회장



서울YWCA의
지난 100년에 감사하고
앞으로의 100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2022년 3월

특별후원



일시후원

- 안윤주
- 장학금 김영심(뿌띠통) 박위자 이행자

일반후원



강명희 강서현 고려옥 고선혜 곽민규 권혜진 기영숙 김미자 김병호 김상순 김선자 김소희 김숙희 김영심 김영주 김용수 김윤희 김인복 김종한 김해정 김현경 김 형 김효신 나순복 민혜경 박숙자 박위자 박정희 박제희 박진선 박혜리 배은경 서혜영 석성옥 송순옥 심영자 안두환 양수경 양진화 오세연 오준호 우주훈 우훈희 유광주 육순연 윤혜선 윤혜선 이관우 이미리 이민정 이애진 이옥희 이원희 이유리 이유림 이윤선 이은숙 이종미 이행자 이홍자 임정훈 임정훈 임중현 장경미 장경세 장민경 장수자 전용옥 정문옥 정석용 정승원 정은숙 조성환 조연신 조종남 지복임 채재호 최충만 최 불 최수경 최정우 최혜란 하태진 한정신 한정우 홍근표 (주)내일과내일

내일빛 캠페인 A기금 정기후원

(구 난민소녀 학교보내기, 핑크박스)

구영숙 김정순 박대화 배정미 송순옥 염현경 우정현 월요까페 이재림 임은유 임지영 정수경 조순영 조종남 채서은 최경자

복멘토링 후원



김나은 김민아 김상희 김선자 김성연 김은순 김정숙 김지영 김진숙 김혜경 나순복 남은희 박나영 박미소 박소현 박용천 박진선 박채원 배은경 손예림 손지용 송태연 신여명 신정숙 심영자 양진화 여현주 염미연 염현경 우영숙 월요까페 이명아 이연배 이옥희 이윤선 이재림 이푸른하 이현미 이희정 임재연 정나미 주동일 최동수 최 불 최정우 최한나 최혜영 한혜영

재능 기부



- 이경순(명예위원)
- 2022년 3·4월 회보 '영화와 삶' 칼럼 기고

월 CMS 후원



감윤우 감윤익 강경아 강경희 강금미 강동우 강명숙 강문숙 강민아 강성길 강수미 강신범 강신봉 강영숙 강영임 강옥수 강유민 강윤정 강인지 강일훈 강주현 강진희 강창석 강춘호 강충모 강하자 강형식 고경혜 고광표 고동연 고선자 고성희 고유나 고은경 고은비 고은정 고은정 고은희 고인미 고재옥 고현진 고희애 고희준 공명주 공우재 광동윤 광미숙 광민정 광지영 광지훈 구미영 구범서 구수영 구연경 구오영 권규상 권기웅 권내영 권범찬 권성준 권순철 권예현 권오상 권우경 권은희 권정연 권정희 권혁준 권혜진 권희원 권희정 길명경 길소연 길인숙 길종선 김경금 김경미 김경미 김경미 김경배 김경삼 김경선 김경아 김경원 김경일 김경일 김경화 김관옥 김관채 김광수 김귀숙 김규영 김규진 김기연 김기욱 김기환 김나영 김남미 김다임 김대진 김도근 김동건 김동은 김동현 김동형 김동희 김두희 김라엘 김랑순 김말녀 김명후 김미경

김미경 김미라 김미라 김미선 김미재 김미정 김미현 김미혜 김민경 김민선 김민성 김민숙 김민영 김민희 김병호 김보라 김보미 김보민 김보현 김복자 김봉근 김봉희 김석한 김선경 김선덕 김선리 김선미 김선영 김선화 김선희 김선희 김성국 김성민 김성민 김성애 김성준 김성진 김성혜 김세용 김세진 김소망 김소영 김소은 김소인 김소희 김수언 김수진 김수현 김수호 김순경 김순남 김순연 김순연 김순임 김순자 김순정 김승찬 김시은 김양선 김양숙 김에스더 김연경 김연경 김연숙 김연순 김연자 김연희 김영식 김영심 김영옥 김영주 김영주 김영해 김예지 김옥민 김용관 김용민 김용숙 김용숙 김용임 김우인 김원경 김유진 김윤나 김윤진 김윤희 김은경 김은경 김은민 김은애 김은애 김은영 김은정 김은주 김은혜 김은혜 김은희 김익동 김자희 김재경 김재성 김재숙 김재신 김재영 김재윤 김재진 김정구 김정기 김정님 김정대 김정래 김정숙 김정순 김정애 김정옥 김정완 김정자 김정철 김정현 김정화 김정한 김중문 김중숙 김중용 김중운 김중진 김중하 김주나 김주리 김주한 김준경 김준희 김지선 김지수 김지수 김지연 김지연 김지영 김지은 김지희 김 진 김진숙 김진숙 김진주 김진향 김진호 김창배 김창섭 김채담 김철민 김철주 김철준 김춘자 김충헌 김태식 김태연 김태준 김태준 김태진 김태한 김통범 김평배 김학희 김한나 김해정 김행미 김현경 김현경 김현성 김현숙 김현숙 김현영 김현일 김현정 김현정 김현종 김현주 김현주 김형모 김형빈 김형숙 김형순 김형순 김형순 김형태 김혜경 김혜성 김혜정 김혜진 김호정 김호진 김홍우 김화숙 김화자 김효숙 김효은 김희성 김희열 김희영 김희원 김희정 김희정 김희준 김희준 나선화 남궁진 남궁혜정 남상택 남상화 남윤경 남희숙 노남례 노미선 노수연 노정자 노혜환 노희수 당효성 동지현 류소리 류종철 류 혁 류형정 마초희 맹지혜 명정신 목동진 문경혜 문다영 문미현 문상규 문현숙 문형규 민경술 민동성 민명자 민선기 민여진 민정애 민지홍 민혜경 민혜경 박갑년 박강규 박경옥 박경호 박경희 박경희 박경희 박광일 박광택 박근화 박근희 박남주 박노영 박명순 박명윤 박문성 박미경 박미경 박미란 박미애 박미영 박병주 박상건 박상덕 박상영 박상정 박상태 박선미 박선영 박선옥 박선주 박성주 박성호 박성희 박소영 박소윤 박소현

박소현 박순예 박순주 박승호 박시윤 박신자 박신환 박양신 박영미 박영선 박영순 박용진 박우표 박운용 박윤슬 박은영 박은지 박은혜 박인선 박지현 박정연 박정우 박정원 박정희 박종인 박종천 박종화 박종희 박주현 박주희 박지영 박지영 박지훈 박 진 박진숙 박진실 박진아 박진용 박찬인 박초순 박춘화 박태경 박태희 박현선 박현숙 박현숙 박혜리 박혜자 박휴영 박희봉 박희숙 박희정 방윤옥 방윤우 방은영 방혜영 배광순 배민선 배상현 배수남 배영우 배윤주 배은경 배은진 배정미 배정숙 배진영 배호성 백미리 백민경 백민주 백옥선 백인성 백정화 백 준 백향덕 백향란 백향은 변영순 변은수 봉진영 서근배 서미화 서반석 서빛나 서상희 서영미 서옥덕 서우정 서은경 서정순 서정연 서정희 서지영 서춘자 서현옥 서현정 서효옥 석상화 석성옥 석영미 선정환 성경란 성덕화 성연석 성윤수 성은숙 성지윤 성지윤 성지희 성호수 손승혜 손승희 손예림 손지용 송경진 송길례 송상경 송선희 송세실 송욱의 송윤주 송이라 송재임 송정민 송중우 송지은 송창울 송창은 송태연 송하윤 송혜승 송혜현 송효수 신경자 신동선 신동원 신민자 신상용 신상우 신승주 신연식 신용자 신지숙 신지윤 신청희 신춘섭 신현미 심경호 심다영 심명란 심재원 심정자 심하선 심하영 안병수 안성포 안성훈 안승계 안영신 안영철 안영호 안외순 안유진 안윤희 안재숙 안정국 안정희 안주희 안지혜 안진희 안진희 안진희 안태건 안한나 양기혁 양명옥 양세진 양수정 양여경 양영순 양영애 양영호 양정은 양종숙 양진영 양현옥 엄경자 엄수길 여명진 염명경 염문철 염미행 염용희 염은애 염지수 염지희 오경아 오미영 오소연 오영아 오은주 오점희 오지영 오형래 온기석 왕정환 왕창식 용윤희 우수경 우승현 우영숙 우은미 우재하 우정희 우현주 우훈희 원경애 원유철 원혜숙 위정선 유규진 유남석 유남실 유덕호 유동미 유명숙 유문형 유미영 유병순 유성희 유 숙 유승연 유연숙 유예목 유원규 유은경 유은정 유은희 유재미 유재현 유정선 유정순 유정한 유주빈 유진선 유현숙 윤경례 윤경숙 윤경진 윤교희 윤동연 윤동원 윤문노 윤미경 윤미소 윤방현 윤상은 윤서희 윤 선 윤선영 윤선희 윤성섭 윤소영 윤수진 윤수화 윤순민 윤이름 윤은희 윤장범 윤재복 윤재숙 윤정향 윤정화 윤지안 윤 혁 윤형석 윤혜령 윤혜섭 윤혜진

윤희경 윤희숙 윤희정 이가영 이가영 이건우 이건학 이경근
 이경민 이경민 이경아 이경애 이경옥 이경자 이경희 이계숙
 이광희 이규택 이금자 이금재 이금희 이기경 이기쁨 이기화
 이나경 이남연 이돈행 이동숙 이동우 이동윤 이동현 이명순
 이명중 이명혜 이명호 이미숙 이미자 이미진 이민석 이민선
 이민자 이민정 이민정 이범재 이병희 이복현 이복희 이상명
 이상원 이상윤 이상해 이상훈 이서현 이선덕 이선미 이선미
 이선아 이선영 이선영 이선희 이선희 이성우 이소영 이소진
 이수범 이수빈 이수연 이수진 이수진 이숙영 이순영 이순옥
 이수우 이순천 이슬기 이승민 이승연 이승재 이승한 이승현
 이승희 이신현 이아름 이아영 이애경 이애리 이양출 이연서
 이영미 이영미 이영미 이영미 이영석 이영숙 이영자 이영진
 이영희 이예순 이옥경 이용숙 이용호 이원애 이원희 이유리
 이유림 이윤선 이윤정 이은경 이은경 이은경 이은빈
 이은숙 이은아 이은아 이은영 이은이 이은자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혜 이은희 이은희
 이재강 이재건 이재경 이재욱 이재정 이재천 이재혁 이정석
 이정석 이정수 이정수 이정숙 이정아 이정은 이정인 이정임
 이정환 이정화 이정환 이정희 이종규 이종미 이종석 이종욱
 이좌녕 이주연 이주형 이주형 이준혜 이증자 이지선 이지영
 이지운 이지현 이지현 이진규 이진선 이진아 이진이 이창준
 이창희 이재진 이춘옥 이충원 이택완 이푸른하 이한기 이한성
 이행남 이행자 이한국 이현식 이현아 이형숙 이혜경 이혜규
 이혜영 이혜원 이혜정 이혜주 이혜진 이희남 이희전
 인치남 임경희 임광택 임동인 임등자 임병남 임병일 임성은
 임성준 임성희 임소영 임은유 임완철 임재연 임재영 임정자
 임정현 임정화 임정훈 임주경 임준호 임중현 임지현 임현정
 임현주 임혜리 임호환 임희진 장경미 장경세 장경화 장금환
 장길례 장선희 장수용 장수용 장순복 장승화 장용익 장윤정
 장주연 장철승 장한수 장현주 장혜미 장혜숙 장혜영 전덕기

전민구 전상숙 전소영 전영삼 전영화 전유오 전윤숙 전은경
 전은미 전은아 전인옥 전재수 전행옥 정경문 정경미 정경옥
 정경원 정동신 정명숙 정미선 정민선 정민선 정상미 정상아
 정세와 정서진 정선주 정선화 정선희 정소희 정수경 정승원
 정승원 정승혜 정애경 정연수 정영룡 정영희 정예슬 정유리
 정은주 정은진 정은하 정재훈 정정순 정정애 정정일 정중화
 정중화 정준선 정지영 정지원 정지향 정진우 정진희 정창용
 정한솔 정해윤 정현아 정현정 정현주 정혜령 정혜승 정혜운
 정화자 제오복 조규성 조길수 조남억 조명희 조미선 조미숙
 조성미 조성미 조성진 조성호 조세환 조연신 조예은 조용선
 조윤신 조재상 조점순 조정현 조정현 조준하 조중희 조진영
 조진희 조하은 조혜성 조혜전 조호선 조홍신 주명애 주민숙
 주소은 주우철 주지성 주정로 지경표 지영 지영찬 지인
 진영선 차경희 차지혜 차학주 채송화 채송화 채재호 채정림
 채지은 최광기 최기은 최명민 최명희 최문정 최민호 최봄
 최서래 최선미 최수경 최수경 최수희 최순자 최순태 최승동
 최승미 최승민 최신지 최영실 최영아 최영주 최용운 최윤영
 최유정 최윤서 최윤주 최윤형 최은주 최정희 최종대 최종인
 최지영 최지영 최지은 최지희 최현경 최현경 최현경 최혜원
 최호길 최희숙 탁순희 탁정미 하령자 하정미 하태성 하태진
 한가원 한경희 한규철 한규철 한다정 한민희 한성우 한숙희
 한승연 한승연 한승희 한예성 한윤경 한이수 한인선 한재희
 한 정 한정신 한정우 한정원 한정화 한지현 한현식 한혜정
 함봉진 함화순 허경희 허선영 허영록 허영숙 허지웅 허철영
 허혜정 현은순 홍경화 홍성희 홍수연 홍윤서 홍은미 홍정남
 홍정혜 홍주실 홍지애 홍진기 홍학희 홍현표 홍호성 황경희
 황명숙 황미영 황보림 황보영 황선미 황선영 황순분 황어진
 황왕연 황용숙 황용하 황은경 황주혜

(주)시공디자인 (주)제이티 (주)체험왕 중앙이앤씨

깊어지고 길어지는 주름 꼬리의 솔루션
 안티에이징의 기초를 바로잡다

에이지 포커스 프라임 링클 포 올 세럼 & 아이 포 올 크림



ISAKNOX

후원 계좌 | 농협 317-2021-0710-91 | 문의 02-3705-6041
 (예금주 : 사단법인서울와이더블유씨에이) 후원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창립 100년 비전선언문

1922년 서울YWCA 기독교여성들은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고 한국 여성들의 잠재력을 일깨우며 정의·평화·생명 세상을 건설하는 마중물이 되었다. 서울YWCA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를 돌보며 살리는 기독교여성시민운동의 역사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후 위기, 양극화, 사회갈등의 위기와 문명사적 전환기 앞에서도 서울YWCA는 시대의 위기를 돌파했던 신앙의 선배들을 본보기 삼아 도전적 의지와 책임감으로 한국 사회에 기여할 것이다. 서울YWCA는 창립 100년을 맞아 '여성이 세상을 바꿉니다'라는 새로운 비전과 슬로건을 선포하며 세상의 모든 여성과 함께 열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Y 여성의 무한한 가능성, 청년정신으로! 세상을 살리는 Y

W 기독교여성의 확장성, 사회적 영성으로! 세상을 살리는 Y

C 생태계의 회복, 더불어 살아감으로! 세상을 살리는 Y

A 정의·평화·생명 세상, 꿈꾸는 여성들과 연대함으로! 세상을 살리는 Y

서울YWCA의 새로운 비전은 사회적 책임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영성, 사회의 변화를 상상하고 만드는 운동성, 더 나은 세상으로 뚜벅뚜벅 나아가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사회혁신과 변화를 위해 5대 목표를 수립한다.

하나, 기독교 정신을 사회적 언어로 소통하며 실천한다.

하나, 회원·시민과 함께 기독교여성주의, 기후 위기대응, 평화 운동을 전개하며 사회 변화를 이끈다.

하나, 서울YWCA 정체성 강화와 공유를 위해 중장기 고도화 사업에 주력한다.

하나, 다양한 사회문제와 이슈를 다룰 수 있는 포용적 조직문화를 확립한다.

하나, 세대, 성별, 지역 차이를 넘어 다양한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시민사회운동 처음학교로 자리매김한다.

서울YWCA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여성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며, 정의와 평화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2022. 1. 20.
사단법인 서울YWCA

2022년 서울YWCA 비전사업

서울YWCA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 22

서울Y는 1만명의 여성활동가와 함께 100개의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를 실현하고자 한다
그 시작으로 2022년은 22개의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평등을 넘어 평화로

- 성차별 미디어 아카이빙
- 청소년을 위한 성평등 미디어 리더십 가이드 제작
- 여성청년 글로벌 평화리더십 프로그램
- 미안마 여성 역량강화 프로젝트
- 북한이탈청소년 영어교육 및 평화리더십 프로그램
- Y-틴 평화아카데미
- 청소년 평화 걷기
- 북한이탈청소년과 함께하는 평화 이야기마당
- 디아스포라 여성청년과 함께하는 평화의 밥상
- 시민건강교실 - 여성 생애주기별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

각자도생을 넘어 공동체적 삶으로



- 기후위기 대응 지구사랑 기부 챌린지
- 재소 청소년과 함께하는 '살고 살리는' 멘토링
- 서울YWCA 창립 100년 기금 모금 내일빛 캠페인
- NO 그린워싱! 기업 친환경성 평가 프로젝트
- 지구를 치유하는 가치 소비 확산 프로젝트
- 건강용품 소비자 안전 리포트
- Y-틴, 대학청년Y 회원 멘토링
- 돌봄과살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2022 서울YWCA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 22

개인의 영성을 넘어 사회적 영성으로



- 목회자를 위한 성평등 교회 운영 매뉴얼 제작
- 교회 리더십을 위한 페미니즘 교육
- 기독교시민아카데미 개설
- 생애주기별 여성을 위한 예배



최용신

농촌계몽 독립운동가
(1909-1935)

심훈의 소설 「상록수」 주인공 채영신의 모델로 잘 알려진 최용신 선생은 루씨여자고등보통학교를 거쳐 협성여자신학교(현 감리교 신학교)로 진학해 교수인 황에스더 선생을 만나며 농촌계몽운동에 확고한 뜻을 세웠다.

1931년 10월, YWCA의 파송으로 샘골(천곡, 현 안산)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석 달 만에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강습소에 다니게 되었으나 일본 순경의 학생 정원 제재로 어려움을 겪었다.

마을 주민들의 도움으로 1933년 샘골학원을 세우고 활동을 이어갔으나 갈수록 심해지는 일본의 탄압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한계를 느끼며 1934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지만 석 달 만에 병으로 귀국했다.

마을 사람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샘골로 돌아온 선생은 아픈 몸으로 수업을 계속하다 1935년 결국 장중첩으로 생을 마감했다.

순국 60주년을 맞은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았으며, 2007년 안산시에 최용신기념관과 최용신 거리가 만들어졌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용신봉사상’을, 안산시는 ‘최용신 봉사상’을 시상하며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



샘골 강습소 신축 공사 기념식 당시의 모습(최용신기념관 소장 사진)



상록수역에서 최용신기념관까지의 최용신 거리에 있는 조각상

(사)서울YWCA www.seoulywca.or.kr 대표전화 3705-6000

지역번호 02

소비자정보센터 1372, 3705-6060
스포츠센터 수영·헬스·피트니스 3705-6030
돌봄과살림센터 가사돌봄미·산후조리사·아기돌봄미 3705-6013~5
 간병사 858-4516~7
 재가장기요양기관 855-8826

봉천종합사회복지관 www.bongchun.or.kr 870-4400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www.ywcajob.or.kr 858-4514~5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www.job365.or.kr 951-0187~8
강남청소년수련관 www.gangnamyc.or.kr 544-9725~6
누리봄 www.bongchun.or.kr 888-7983